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6

본문: 마가복음 1:16-20

| 서론: 제자 공동체의 출발과 부르심의 의미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서론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준다. 특별히 15절에서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언하신다. 이는 사탄의 권세가 패하고, 억압과 속박 아래 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사건, 곧 새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핵심 선언이다.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사상이나 이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죄인과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받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선언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그런데 마가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을 기적이나 능력의 드러냄으로 열지 않는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6-20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곧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도를 만들거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낼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강제로 주입되는 체제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는 나라이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향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인가?** 예수께서 사역의 첫걸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교회의 본질 역시 사람을 세우는 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 교회는 종종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성도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는 충분히 힘을 쏟지 못할 때가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신앙의 뿌리는 얇고 중심은 빈약한 상태로 남아 있을 위험도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자란 누구이며, 제자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역시 갈릴리 해변에서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한다.

| 본론: 본문 주해1

Mark 1: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Mark 1: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낚는데

1. 부르심의 배경: 혼돈의 바다

마가복음 1장 16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전한다. 마가는 이 부르심의 배경을 특별히 ‘갈릴리 해변’, 곧 **갈릴리 바다**로 설정하고 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바다만큼 큰 호수이다. 이 때문에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였다.¹ 요한복음 21장 역시 한글 성경에서는 ‘호수’로 번역되기도 하나,² 원어상으로는 ‘디베라 바다’라 표현되어 있다.³ 오직 누가복음만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 기록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마태·마가·요한 세 복음서가 이곳을 일관되게 ‘바다’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바다가 지닌 신학적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바다’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흑암의 깊음, 곧 혼돈의 물 위에 질서를 세우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⁴ 이처럼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기 전의 **혼돈과 위협의 상징**이다. 마가는 바로 그 혼돈의 공간, 어둠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고 계심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곳이 아닌, 혼돈과 어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¹ Luke 5: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² John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³ **디베라 바다**는 신약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다.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Tiberius)’의 이름을 따라 세워졌다. 요한복음은 헬라·로마 세계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갈릴리 바다를 보다 행정적·공식적인 명칭인 “디베라 바다”로 부르고 있다.

⁴ Gen.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 첫번째 부르심 - 시몬과 안드레

처음 부르받은 두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 형제**였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으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생업에 종사하던 중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시몬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갈릴리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여 이방인의 땅과 인접해 있었고, 그만큼 헬라 문화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살아가던 지역이었다. 이들의 이름은 바로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러한 배경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던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종교적 심장부가 아닌, 소외된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이들이 어부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식하거나 극도로 가난했던 것은 아니다. 훗날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된 시몬은 개인 소유의 배를 가진 **선주**였다. 이는 그가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당대 평균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뒷받침한다.

물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율법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만 치부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이다.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사회적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고,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아감으로 기득권층으로부터 소외된 존재들이었음은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경계에 선 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2. 두번째 부르심 - 야고보와 요한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들 역시 시몬과 안드레처럼 어부였으며, 배에서 일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는다. 다만 같은 어부라 할지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앞선 두 사람보다 더 부유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20절에서 그들의 **집안에 품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시되기 때문이다.⁵ 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이 상당한 규모의 가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요한의 저술들을 살펴보면, 그가 지적·신학적으로 상당한 깊이를 지닌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몬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것과 달리, 야고보와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갈릴리 지역 내에서 헬라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나 정체성의 색채가 가문마다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헬라 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가문이었을지도 모른다.

⁵ Mark 1: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처럼 예수께서 부르신 초기 네 제자는 모두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조건, 그리고 성향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흔한 통념처럼 그들이 단순히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그들 모두 당대 종교 기득권의 중심부가 아닌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그들은 그저 무식하고 비천한 자들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비천함'을 언급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가난과 무지로만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은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축소시키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녔으며 공통적으로 주변부에 놓여 있던 이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실재적인 모습이다.

§ 갈릴리 해변, 즉 '혼돈의 바다'라는 배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의미를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는 어떤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나의 신앙 공동체 생활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 본론: 본문 주해2

Mark 1: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Mark 1: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Mark 1: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 사명

이 17절 말씀은, 주님의 첫번째 부르심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두번째 부르심의 장면에서 예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는데, 이는 앞선 부르심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필 필요가 있다. ‘나를 따라오라’는 단순한 동행의 초대가 아니라, 전쟁으로의 부르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마치 장수가 전장에 나서며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것처럼, **함께 싸우자는 요청**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라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날이 마침내 왔다고 기대함 가운데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수께서 치르실 싸움은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싸움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이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영적인 싸움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이다.

이어서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맥락, 특히 예레미야 16장을 보면 고기잡이는 하나의 은유로 사용되며,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⁶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사명을 맡기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르심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권세에 대한 약속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보인다. 훗날 그들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⁷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그들이 심판과 권력의 자리로 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였다. 제자들은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새출애굽, 곧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권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분명한 도전이 있다. 먼저,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의 초대**이다.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부르심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앞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가셔서 피 흘리며 싸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를 뿐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여뵈어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리와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도 함께 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며 주신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면서 동시에 전도의 삶이다. “주의 길을 따르되 혼자 가지 말라.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네가 나를 따라온 것처럼 그들도 나의 길을 따라오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 나 혼자 제자가 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개인을 따로 부르셨지만, 그들을 함께 묶어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감화시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 나는 주님을 앞서서 나의 방식으로 싸우려 하기보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뒤따라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따르는 삶’에 머물러 있는가, 더 나아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⁶ Jer. 16:1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⁷ Mark 9: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2. 버림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은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두 절 모두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곧”이다.⁸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강조이다. ‘곧’이라는 표현은 즉시, 지체 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응했는지를 이 한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즉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그것은 부정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다. 네 명의 어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주님을 따랐다. 그들은 시간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정리한 뒤에 따르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부르심과 따름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따랐다**는 사실이다.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배와 품꾼들, 아버지 세베대를** 남겨둔 채 주님을 따랐다. 다만 이 장면에서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이, 그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거나 불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혈연보다 앞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인정한 결단이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단**이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자신을 규정해 오던 생업과 가장 깊은 소속이었던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안정과 익숙함을 내려놓는 일**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였다.



⁸ καὶ εὐθὺς(카이 에우뒤스)는 “그리고 곧바로, 즉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마가복음 1:18과 20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마가는 이 어구를 통해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 요구되는 **지체 없는 순종과 결단**을 강조하며, 제자도의 시작이 계산이나 망설임이 아닌 즉각적인 응답임을 드러낸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제자의 반응은 미루는 반응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이며, 거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응답하는 반응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문제이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따른다. 오늘 제자들이 물건과 사람, 그리고 삶의 터전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

▸ **제자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제자이다.

§ 제자들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임 없이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과 계획을 우선시키고 있는가?

제자들이 생업과 관계, 안정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결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혼돈과 어둠의 바다, 즉 세상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고결하고 완벽한 곳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과 소외된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은 헬라적 배경의 시몬·안드레와 히브리적 전통의 야고보·요한을 함께 부르셨다. 부유한 선주와 평범한 어부라는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제자도는 개인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단순히 동행하자는 초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 전장으로 나아가자는 강력한 요청**이다. 제자들은 이 부르심 앞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생업과 삶의 기반, 그리고 혈연과 관계가 주는 안락함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이러한 '버림'은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며, 제자란 '무엇을 버렸는가'보다 '누구를 따르는가'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